

# “겨울여행, 별미 가득한 남도로”...전남도 관광지 추천

담양 창평국밥·보성 벌교꼬막·신안 김국·해남 버섯전골 선정

전남도가 9일 '겨울 입맛 돋구는 별미 따라 전남 한바퀴' 관광지 4곳을 추천했다.

1월 별미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곳은 담양 창평 전통시장 국밥거리, 보성 벌교 꼬막거리, 신안 송공항 김국, 해남 두륜산 버섯전골 거리다.

담양 창평 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장과 함께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이곳 국밥은 국과 밥이 따로 나온다. 폭 끓여낸 돼지고기 국물과 옛날 방식으로 만든 순대의 조합이 일품이다.

주변에는 조선 후기 전통 사대부 가족과 구불구불 옛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창평 삼지내마을, 프랑스 휴양지 프로방스 지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메타프로방스, 가로수가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길 등 추운 겨울에도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다.

보성 벌교 꼬막 거리에선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8도 진미 벌교 꼬막을 맛볼 수 있다.

찬바람이 부는 때가 제철인 꼬막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삶든, 무치든 어떻게 조리해도 바다향과 함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꼬막으로 만든 초무침, 비빔밥 등 다양한 꼬막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주변에는 1970-80년대 읍내 모습을 재현해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소중한 추억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득량역 추억의 거리, 추운 겨울에도 푸른 녹음으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대한다원, 지상과 방송 드라마 '웃소매 붉은 굿동' 촬영지인 한국정원 월화정 등이 있다.

신안 송공항 김국은 예로부터 전해온 양식 기술로 생산한 신안 물김으로 만들어 국물이 담백하다. 취향에 따라 굴이나 나지 등을 넣어 끓인다. 김 채취 시기인 요즘 물김으로 끓여낸 국물은 바다의 풍미를 진하게 느낄 수 있어 겨울철 대표 별미로 꼽힌다.

주변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피어난 아기동백꽃이 아름다운 천사섬 분재공원, 수석미술

관, 세계조개박물관으로 꾸며진 1004 뮤지엄파크,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반월·박지도(떠섬) 등 이색 해양관광자원이 많다.

해남 두륜산 흑두부 버섯전골은 고기와 버섯, 두부를 푸짐하게 넣어 끓이는데 버섯에서 우러난 담백하고 깊은 맛의 육수에 채소와 고기가 더해져 맛의 품미가 깊다.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대흥사, 빼어난 산세와 다도해의 절경이 어우러진 명품 산책길 달마고도, 우리나라 서쪽 땅끝에 위치해 낙조가 아름다운 구 목포구 등대, 아이들과 공룡화석 발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해남공룡박물관 등이 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새해를 맞아 정초한파(正初寒波)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날씨에 전남 별미 여행으로 몸보신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전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에 157억원 지원...연리 1~2%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



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등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157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차율을 차등 적용

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용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 사용 분야는 축사 건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전남도, 환경부에 가뭄 장단기 대책 건의

혁신공향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조속 통과 지원 요청도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와 광양 수어댐 등 가뭄으로 어려운 현장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가뭄극복 국비 지원 및 혁신공향 건설 조속 추진 등 시급한 현안을 건의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가뭄 관련 장·단기대책을 건의한데 이어 2021년 7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총괄협의회 통과 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혁신공향 관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변경계획'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가뭄극복 단기대책으로 ▲해수담수화, 저수지 준설, 급수운반비 등 가뭄대책비 100억 원 ▲완도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1천541억 원 중 국비 1천78억 원(70%) 지원을 부탁했다. 또 장기대책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리사이클링)시설 확대 추진 ▲여수 산업단지 폐수 재이용 사업(940억 원) 조속 추진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가뭄대책비 100억 원은 해수담수화시설 8개소 61억 원, 저수지 준설 12개소 24억 원, 급수 운반비 15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완도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1천541억 원은 노화·보길 31.1km 구간에 678억 원, 약산·금일 49.7km 구간에 863억 원을 각각 투입해 가뭄을 해소할 방침이다.

혁신공향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조속 통과에 대한 혁신공향 건설이 서해안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과 국토 서남단 혁신도권 일원의 접근성 강화, 교통기반권 보강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임을 강조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현대삼호중공업, 설 명절 전 협력사 자재대금 조기 지급

현대삼호중공업이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 사회와 운정 나누기에 나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외 협력회사들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납품하는 자재대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31일)보다 11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오는 20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협력회사는 300여 개사로, 금액은 약 312억 원에 달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자재대금 조기 지급으로 협력회사 임직원 모두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적극 살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mo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